



## 북한의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비교분석

오신유\*

중앙대학교

김태영

중앙대학교

### ARTICLE INFO

Received: 7 December 2019

Revised: 16 January 2020

Accepted: 10 February 2020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Tertiary

### KEYWORDS

North Korean 2013 Revised Curriculum/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textbook analysis/

북한 2013 개정 교육과정/

북한 영어 교과서/

교과서 분석

### ABSTRACT

Oh, Shinyu, & Kim, Tae-Young. (2020). A comparison of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between pre- and post-2013 Revised Curriculum in North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21(1), 43-55.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cent changes in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compare the differences in pre- and post-2013 Revised Curricula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To this end, three post-2013 Revised Curriculum high school textbooks are compared with three pre-2013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By using contents analysis, particularly relying on Coh-Metrix, these textbooks are compared considering three categorie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hapter/content organizations, topics, and readability in each school year. First, along with listening materials, a renewed emphasis on English verbal communication was found in the revised textbooks. Second, revised textbooks included more practical topics such as science, technology, and everyday life, whereas pre-revision textbooks comprised of more communist ideology, idolizing the Kim family, and promoting patriotism. Third, in terms of readability of textbooks, the analysis of Coh-Metrix revealed that the burden of learners increased due to the exponentially increased volume of new vocabulary textbooks. However, in the case of pre-2013 textbooks, the difficulty level of reading sections in each year fluctuated, whereas that of the post-2013 textbooks presents a steady increase as students advance in their school grade.

### I. 서론

북한의 교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기간에, 각 정권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에 따라 외국어 교육 목적 또한 변화해 왔다(J.-A. Cho, K.-D. Lee, C. K. Jung, & H. Kang, 2015; J. S. Hong & J.-R. Kim, 2019).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단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각 시대별로 지향하는 외국어 교육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권에 따른 영어 교육 목표

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영어를 1964년에 공식적으로 학교교육에 도입하였다. 김일성 집권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미국을 포함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며, 영어 및 일본어로 간단한 군사용어를 가르치는 등 전쟁을 대비한 군사 외국어 교육 위주로 시행되었다(Cho et al., 2015; J.-R. Kim & J. Kim, 2017; N. S. Kim, 1995). 그러나, 동구권 몰락으로 1991년부터 북한 대학에서는 제 1외국어로

\* 제1저자: 오신유, 교신저자: 김태영

오신유(대학원생)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 820-5392 / Email: shnyh1424@naver.com

김태영(교수)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 820-5392 / Email: tykim@cau.ac.kr

독보적인 입지를 점유하던 러시아어는 영어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 학교급(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B. Lee, H.-K. Yang, & O.-H. Kwon, 2005).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영어가 국제공용어로 인정되며, 과학기술 발전 및 해외 국가와의 교류를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언어로 규정되는 등, 북한에서 영어 교육 입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에 영국과 정식 수교를 맺어 북한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을 필두로 한 영국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교재 개발, 영어교사 양성과 같은 실질적인 영어교육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J. S. Hong & J.-R. Kim, 2019).

위와 같은 최근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는 공통적으로 북한 영어교과서의 문제점이 주로 부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종이와 인쇄의 상태가 좋지 않고, 삽화의 양이 현저히 적으며,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J. S. Hong & J.-R. Kim, 2019; Y.-W. Park, K.-H. Park, J.-C. Kim, K.-S. Ko, & K.-J. Chung, 2001). 또한 내용적 측면으로 북한의 정치·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치자를 우상화, 사회주의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며,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과 비판적 내용을 담는 등, 교과서를 사상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지적되고 있다(J. S. Hong & J.-R. Kim, 2019; B. Lee et al., 2005; Y.-M. Park et al., 2001). 특히 영어의 4 기능 중 듣기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는 영어 원어면 부재와 기술 및 경제력 부족으로 듣기 교육이 온전히 실시되지 못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J.-R. Kim & J. Kim, 2017; J. S. Hong & J.-R. Kim, 2019).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해 발표하고, 이듬해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시행’을 공포하였으며, 김정은 집권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교육 예산을 증가시키는 등 교육 부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9). 김정은 집권기의 교육정책 특징은 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에서 교수 시간이 가장 많이 배정된 상위 6개 교과목 대부분이 과학기술교육과 영어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소학교<sup>1</sup>에서부터 고급중

학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어를 폐지하고 외국어 과목을 영어로 단일화하였다(Cho et al., 2015;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또한,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사상교육 교과목보다 영어 과목의 시수가 더 많아진 점<sup>2</sup>을 통해 북한에서의 영어 교육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C.-K. Jung, 2018;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Cho et al.(2015)는 평양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영어교육 개선 프로그램이 고급중학교<sup>3</sup>까지 확장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15년에 출판된 고급중학교 교과서는 이전의 영어교과서와는 외형 및 구성 체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J. S. Hong & J.-R. Kim, 2019).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끼고 영어를 공부하는 남학생이 그려진 표지와 서문을 통해, 김정은 집권기의 영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에 강조를 두며 읽기와 암기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학습하도록 집필하였음을 알 수 있다(H.-Y. Yoo & J.-R. Kim, 2018). 또한 기존의 읽기와 쓰기에 치중했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읽기, 문법, 어휘에 듣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발음 항목까지 총 7가지 기능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고급중학교 교과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구성 체제를 보이고 있다(J. S. Hong & J.-R. Kim, 2019; H.-Y. Yoo & J.-R. Kim, 2018).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2013 개정 이전과 이후의 고등학교 3개년 교과서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영어교육 변화 추이를 제시하며, 통시적 관점에서 북한의 영어교육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 이전 및 이후의 고등학교 3개년 교과서의 외형, 구성 체제 및 소재를 분석하며 개정 전후의 학년 간 연계성 및 교과서 본문 난이도 또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 북한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외형 및 구성 체제는 어떠한가?
- 2) 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 북한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소재는 무엇인가?
- 3) 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 북한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비교할 때, 학년 간 읽기 지문 난이도 및 가독성 연계성은 어떠한가?

<sup>1</sup> 소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북한의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소학교)’에 따르면 소학교 재학 5개년 중 4-5학년 학생들은 주당 2시간의 수업을 받는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9).

<sup>2</sup> 북한 2013 교육강령에 제시된 “고급중학교 영어과목 교수시간(243시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160시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148시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81시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42시간)보다 높은 교수 시간이 배정되어있다”(Cho et al., 2015, p. 104).

<sup>3</sup> 북한의 학제는 2014년 김정은 집권기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화하였으며, 기존의 중학교 6년(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우리나라 학제로는 초급중학교는 중학교, 고급중학교는 고등학교에 해당한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9).

## II. 이론적 배경

### 1. 북한의 영어 교육

북한의 영어교육의 특징은 크게 김정은 집권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2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을 시행하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3학년은 중학교 4-6학년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소학교 4년, 중등교육 6년을 5-3-3제로 개편하였다(J.-A. Cho, 2014). 기존의 중학교 4-6학년은 고급중학교 1-3년으로 재편되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9). 학제 개편 이후에 이루어진 후속조치로 2013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새 교과서 편찬 작업 또한 진행되었다. 아울러, 과목별 수업 시수 및 비중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영어 과목의 수업 시간 수 및 비중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모두에서 전 과목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Cho et al., 2015). 이는 북한이 중등교육에서의 영어교육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영어 교육 위상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준다(J.-A. Cho, 2014).

북한은 2020년 현재 2013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과 이후의 영어 교육은 기능 및 내용 부분에서도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2013 개정 이전의 영어교육 주 목표는 전쟁을 대비한 군사 외국어 교육이었으며(Cho et al., 2015), “손들어(Hands up)”, “움직이면 쏜다(Don't move or you will be shot)” 등과 같은 전쟁 용어들이 영어 교과서를 통해 제시되었다(중학교 6학년, 2008, p. 50). 또한 북한의 영어교육은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과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E.-S. Park & Y.-K. Shin, 2016) 및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B. M. Lee, H.-K. Yang, & O.-H. Kwon, 2005). 반면 개정 이후 교과서에서는 전술한 전쟁 용어는 발견되지 않으며, 대신 과학기술을 위한 영어교육의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북한의 외국어교육 강화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J.-A. Cho, 2014).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영어교육 강화는 북한의 2013 개정 이후 영어교과서에 극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출판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S.-Y. Hwang & J.-R. Kim, 2017).

### 2. 북한 영어 교과서 분석

2013 개정 이전의 교과서는 주로 읽기와 단어 혹은 문법 기능에만 치중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념 관련 어휘를 주로 다루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김정일 우상화 및 사상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Y.-W. Park et al., 2001; H.-Y. Yoo &

J.-R. Kim, 2018). 2013 개정 이후 교과서는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와 대화 능력 향상을 위해 편찬되었다(J. Kim, J.-Y. Lee & J.-R. Kim, 2017).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최근 2013 교육과정 개정 이후 북한 영어교과서를 분석하는 선행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주로 교과서의 외형 및 구성 체제, 어휘, 교과서의 소재, 언어 형식 측면을 분석하여 왔다(J. S. Hong & J.-R. Kim, 2019; Y.-W. Park et al., 2001; H.-Y. Yoo & J.-R. Kim, 2018). 그러나, 2013 개정 이전과 이후의 북한 영어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전히 미흡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조차 연구 분석 대상이 우리나라 학제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한 학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J. S. Hong & J.-R. Kim, 2019).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즉 김정은 집권 후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Lee et al., 2005; Y.-W. Park et al., 2001; E.-S. Park & Y.-K. Shin, 2017). 비록 최근에 출판된 H.-Y. Yoo와 J.-R. Kim(2018)의 연구는 개정된 2013 교육과정 시행 전과 후의 북한 영어교과서 구성 체제를 비교하였지만 이는 초급중학교(3학년)와 고급중학교(2-3학년)를 비교·분석한 연구로, 우리나라 학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분석이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발견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 즉 2013 개정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김정은 집권 이후(2013 개정 후)의 영어교과서이다. 분석 대상 자료인 북한의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서울 서초구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서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또한, 총 6권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각 시기별로 가장 최근에 출판된 것으로, 외국문도서출판사라는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이다. 이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TABLE 1**  
List of Pre- and Post-revision English Textbooks in North Korea

	Middle school (Pre-revision textbooks)			Advanced middle school (Post-revision textbooks)		
Grade	4	5	6	1	2	3
Year of publication	2008	2008	2008	2013	2014	2015
The number of units	15	16	9	9	8	7
Pages	119	154	99	127	119	111

본 연구에서는 북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의 외형, 구성 체제, 소재 및 학년 간 지문 난이도를 각각 비교·분석한



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적 및 내용적으로 세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에 드러나는 북한 영어교육의 특징 및 변화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H.-Y. Yoo & J.-R. Kim, 2018; Y.-W. et al., 2001; S.-Y. Hwang & J.-R. Kim, 2017)에 기반하여, 각 학년별 교과서의 외형을 분석하기 위해, 표지, 서문<sup>4</sup>, 단원의 수, 참고도서 등을 정리하여 학교급, 학년별로 비교하였다. J. S. Hong과 J.-R. Kim(2019)에 따르면, 북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북한의 독재 정치 형태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방침과 목적이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형분석을 통해 북한 영어 교과서에 드러난 고유한 영어 교육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영어교과서의 머리말을 분석함으로써, 각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집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H.-Y. Yoo & J.-R. Kim, 2018). 아울러, 각 교과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 구성 체계를 비교하였다. 구성 체제란 각 단원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흐름 뿐 아니라, 한 단원이 영어의 4기능을 포함하여, 단어, 문법, 발음 등의 세부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각 항목들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 보며 각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한다.

둘째, 2013 개정 이전과 이후,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J. S. Hong과 J.-R. Kim(2019) 및 Y.-W. Park et al.(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교과서 읽기 지문을 크게 6가지 세부 항목(우상화 및 애국심 고취, 미 제국주의 비판, 과학기술, 문학작품, 일상·학교·가정생활, 기타)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개정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나타나는 소재를 분석함으로써, 각 시기별로 차별화된 북한의 정치 사상(혹은 입장) 및 북한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시기별 북한 영어교과서의 학년 간 지문 난이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교과서의 학년별 읽기 지문의 난이도 및 가독성(readability)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범위를 교과서 각 단원의 읽기 본문 텍스트로 한정하였고, 코퍼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웹기반 Coh-Metrix 3.0 프로그램(참고: <http://tool.cohmetrix.com>)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개정 전과 후 교과서의 각 단원별 읽기 지문을 분석하여, 각 시기별 교과서의 학년별 수준 및 연계성을 세부 기준에 따라 구체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웹 버전 Coh-Metrix 3.0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대한 자료를 총 11개로 범주화 하여 하위 항목으로 총 106개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I. Sung, 2014). 본 연구는 J. Bac(2019)의 Coh-Metrix 분석 항목을 참고하여, 총 11개의 범주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총 2가

지 항목(기초산출치, 표준가독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2013 개정 전후에 사용된 교과서의 읽기 지문의 난이도 및 가독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항목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 산출치

각 단원의 읽기 지문에 사용된 단어의 수와 한 문장 내에 사용된 단어 수를 계산하여 문장 길이를 제시하는 수치이다. 읽기 지문의 양을 결정하는 지표인 단어와 문장의 수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문장 길이가 길수록 읽기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S. Ahn, 2018; M. G. Jeon, 2011), 기출 산출치는 전반적 난이도를 유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J. Bac, 2019).

### 2. 표준가독성

Coh-Metrix는 가독성을 분석하는 공식들 중 Flesch Reading Ease(FRE)(Flesch, 1948)지수와 Flesch-Kincaid Grade Level(FKGL)(Kincaid, Fishburne, Jr. Rogers, & Chissom, 1975) 및 Coh-Metrix L2 readability(RDL2) 총 3가지를 항목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J. Bac(2019) 연구를 참조하여 FRE 및 FKGL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FRE는 단어 당 음절수의 평균과 문장 당 단어의 수를 계산한 것으로, 단어의 난이도 및 통사적 복잡성을 나타낸다(I. Sung, 2014). FRE는 0부터 100사이의 수치로 표기되는데, 대체로 80이상의 점수일수록 해당 지문의 난이도가 쉬움을 의미한다. FKGL의 경우, 해당 지문을 미국학교의 학년 등급으로 바꾸어 해당 텍스트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으로(I. Sung, 2014), K-12와 유사하도록 0부터 12까지 등급화하여, 12등급에 가까울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더 어려움을 나타낸다.

위에서 정리한 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요소는 총 4개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요인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Coh-Metrix Analysis Items Used in the Study

Items	Coh-Metrix analysis items
Descriptive	Number of words
	Sentence length
Readability	FRE (Flesch Reading Ease)
	FKGL (Flesch-Kincaid Grade Level)

<sup>4</sup> J. S. Hong과 J.-R. Kim(2019)의 분석 준거에 의거하여, 서문은 속지 첫 부분부터 1단원이 시작하기 전까지에 해당한다.

## IV. 연구결과

### 1. 교과서별 외형 및 구성 체제비교

#### 1) 교과서별 외형의 특징과 차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영어교육은 김정은 집권 이전(2013 개정 전)에 사용된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지, 분량, 머리말과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개정 이전 교과서에의 표지는 단순히 책을 목독하고(중학교 4학년 교과서), 교사로부터 배우며(중학교 5학년 교과서), 영어 회화집이라는 책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친구와 대화하는 듯이 보이는 그림이 담겨있다(중학교 6학년 교과서)<sup>5</sup>. 그림 1은 중학교 4학년과 5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해당)에서 사용하였던 영어교과서의 표지이다.



FIGURE 1 Covers of Pre-revision English Textbook for Middle School Fourth and Fifth Grades

개정 이후 교과서<sup>6</sup>인 고급중학교 교과서 표지의 경우, 이전과는 상반되는 그림으로 단순히 책을 눈으로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남학생이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착용하고 무언가를 들으며, 책에 필기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표지는 고급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sup>7</sup>.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전의 부족한 경제, 기술력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듣기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져,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 교육이 대폭 보강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J. S. Hong & J.-R. Kim, 2019).

H.-Y. Yoo와 J.-R. Kim(2018)과 C. K. Jung(2018)의 연구에 제시되었듯, 북한의 영어교과서는 제시된 서문, 특히 머리말을 통하여 각 시기별 영어교육 특징과 목표를 알 수 있다. 북한의 영어교육은 2013 개정 전과 후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은 북한의 혁명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C. K. Jung(201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에서의 영어 교육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언어적 기능보다는 “정치·사상적인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 과목”으로 더 강조된다(p. 57). 이는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북한의 혁명을 위함이라는 공통적 목적 하에 영어 교육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다음은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에서의 머리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 말도 조선혁명을 위하여 배우는 것을 똑똑히 알고 외국어를 실지[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배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중학교 4학년 머리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입장[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고급중학교 3학년 머리말).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는 모두 기초적인 어휘 및 문법 학습을 통해 영어 지식 습득을 장려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개정 이전 중학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독해력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법 및 어휘와 기초 문형 암기 등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단계에서 외국어의 기초를 튼튼히 담기 위하여서는 입말기능을 높이는 것과 함께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중학교 5학년, 6학년 공통 머리말).

이에 반해 김정은 집권 이후인 개정 이후의 경우, 읽기와 쓰기, 말하기 목표와 더불어, 청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읽기 및 듣기능력, 말하기 및 글쓰기 능력들을 숙련시키고, 이에 필요한 어음, 어휘, 문법 지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급중학교 3학년 머리말).

“어휘, 문법과 같은 언어지식들을 읽기 연습을 통해 습득하고 그것을 듣기나 말하기, 쓰기연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체계를 구성하였다” (고급중학교 2학년 머리말).

즉, 북한의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는 “북한의 혁명을 위함”이라는 공통적 목표 하에 영어의 기초 능력 학습을 제

<sup>5</sup> 해당 교과서의 표지는 상당부분 낡아서 인쇄 훼손되어 제시하지 못하였다.

<sup>6</sup> 개정 이후 고급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서 DVD를 통해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 및 복사가 금지되어 있어 교과서 원본 표지 스캔이 불가하다.

<sup>7</sup> 개정 이후 고급중학교 표지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기까지 표지는 모두 동일하며, 표지 색상만 각각 초록, 보라, 주황색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시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 교과서는 독해력에 개정 이후 교과서는 보다 더 실용적인 듣기나 말하기, 또는 쓰기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2) 교과서별 구성 체제 특징과 차이

북한의 영어교과서 구성 체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북한의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3**  
Organization of Textbooks

	Middle school	Advanced middle school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tents</li> <li>• Preface</li> <li>• Song of General Kim Il Sung (only in the 5th grad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face</li> <li>• Song of General Kim Il Sung / Song of General Kim Jung Il/ Patriotic Song(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respectively)</li> <li>• Contents</li> <li>• The plan of the book</li> </ul>
Un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estions on the text</li> <li>- Points</li> </ul> </li> <li>• New Words and Expressions</li> <li>• Grammar and Us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rcises</li> <li>- Say in English</li> </ul> </li> <li>• Proverbs in North Kore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ading</li> <li>• Listening</li> <li>• Speaking</li> <li>• Writing</li> <li>• Grammar</li> <li>• Vocabulary</li> <li>• Pronunciation</li> </ul>
Review of the chapter	Yes	Yes
Additional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pplementary reading</li> <li>- New words and Expressions</li> <li>• Vocabula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ir work</li> <li>• Supplementary reading</li> <li>• Grammar Appendix</li> <li>• Irregular verbs</li> <li>• Vocabulary</li> </ul>
References	No	Yes

북한의 개정 이전과 이후 영어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서문, 각 단원, 복습 단원 그리고 추가자료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다. 두 시기의 영어교과서는 모두 표지 이후 서문에서 머리말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목표를 심어주며, 영어교육이 북한 혁명의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해 머리말 뒤에는 Song of General Kim Il Sung(김일성 장군의 노래), Song of General Kim Jung Il(김정일 장군의 노래), Patriotic Song(애국가)과 같은 애국심 고취 자료를 싣고 있다. 또한 북한 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로, 이전 단원을 3-4개로 묶어 복습할 수 있는 단원을 따로 구성해 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시기 교과서 모두 모든 단원 이후에 권말 부록으로 추가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렇듯 북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구성체계의 틀은 비교적 유사하게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표지와 서문의 변화에서 나타나듯,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는 4기능의 균형있는 발달 측면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정 이후 교과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체 단원의 제목과 페이지 수를 제시하는 Contents 이외에, 각 단원의 세부 목표를 “The plan of the book”이라는 페이지로 명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각 단원에서의 7가지 하위 기능(즉,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단어, 발음, 문법)의 세부 활동 및 기능별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반 교과서들에서도 보이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보다 더 체계적인 구성을 도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개정 이전과 이후의 구성체제 차이는 각 시기별로 강조하는 교수법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개정 이전 교과서의 경우, 각 단원은 읽기 본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영어 질문들과 본문 내용을 요약하는 Points들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지문 뒤에는 각 지문의 신출 어휘를 제공하며, 각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 활용되는 문법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Say in English를 통하여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기 등을 통해 말하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자재 또는 영어 원어민의 부재로 인해 듣기 자료 없이 단순히 주요 문형을 소리 내어 읽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것에 국한되어 실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와 대화능력 향상에는 근원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 이후 영어교과서의 경우, 앞서 표지 삽화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업 보조 기자재를 적극 활용한 영어교육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 영어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듣기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대화 및 표현을 듣고 따라할 뿐 아니라, Pronunciation 부분을 통해, 단순히 본문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각 표현의 정확한 발음 및 억양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단원은 각 7가지 하위 기능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읽기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지문과 관련하여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개정 이후 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짝/그룹 활동지를 교과서 본문 뒤에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길 안내하기, “Find someone who...”와 같은 설문조사하기 등, 각 단원과 연계하여 배운 표현을 말하기를 통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개정 이후 교과서는 각 단원을 통해 기존의 문법 교육과 더불어 듣기, 말하기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이후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추가적인 특징은 문법 부록(Grammar Appendix)과 불규칙 동사(irregular verbs)의 제시이다. 개정 이전 교과서는 각 단원별로 해당 본문과 관련한 문법의 간략한 설명과 확인 문제들이 본문 뒤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교과서의 경우 각 단원별 주요 문법은 교과서 가장 뒤 부록에 문법 부록 항목으로 제



공되며, 각 단원에서 다루어진 문법을 해당 용어, 특징, 예문 및 해석 등 이전에 비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 구별된다. 또한 이 부분이 개정 이후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제시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ESL 교재와 유사하게 문법 지식을 본문에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영어 전용으로만 본문을 구성하여 영어의 실용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단원 자체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문법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예시 문장을 통해 귀납적으로 연습 및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글로 덧붙여 제공하기 위해 해당 문법을 부록에 추가 제시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6학년 즉 우리나라 학교급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만 제공되었던 불규칙 동사가 개정 이후에는 초급중학교 3학년(우리나라 학교급으로는 중학교 3학년에 해당)부터 고급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총 4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의 단원 수는 각 9-16개와 7-9개로 크게 상이하지만(표 1 참고), 오히려 교과서의 전체 분량은 거의 유사하며 이는 개정 이전 교과서에서의 독해, 단어 및 문법 위주 식의 단순한 구성이 아닌, 보다 더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 단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정 이후 교과서의 단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이후 교과서는 보다 실용적인 영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의 4기능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교과서를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교과서 내용의 변화: 본문 소재 비교

북한의 영어교과서는 2013 개정 전후 모두 공통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는 김씨 가문 우상화와 애국심 고취 및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J.-A. Cho et al., 2015; H.-Y. Yoo & J.-R. Kim, 2018). 그러나 김정은 집권기 이후 읽기 본문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언급 대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우주와 환경, 동물 등 흥미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한 언어자료들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고급중학교 2학년 머리말). 이에 따라 보다 더 실용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내용적 측면의 과감한 변화도 발견할 수 있다(H.-Y. Yoo & J.-R. Kim, 2018). 이러한 변화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육은 정치적 사상 교육을 위한 도구보다는 의사소통 및 과학기술교류 수단으로 그 초점이 변화하여, 보다 더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 S. Hong & J.-R. Kim, 2019).

표 4는 2013 개정 이전과 이후 영어교과서에서 사용된 각 단원의 본문 소재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4**  
Contents of Reading Passages in English Textbook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2013

	Middle school			Advanced middle school		
	Grade 4	Grade 5	Grade 6	Grade 1	Grade 2	Grade 3
Idolization of the leader/ Patriotism	33.3%	31.25%	66.7%	11.1%	12.5%	42.9%
Distorted description of other countries	6.7%	18.75%	-	-	-	-
Science/ Technology	-	-	-	22.2%	25%	28.6%
Literature	13.3%	31.25%	22.2%	-	-	-
Daily/ School life	20%	18.75%	11.1%	22.2%	37.5%	28.6%
Nature	13.3%	-	-	11.1%	12.5%	-
Etc.	13.3%	-	-	33.3%	12.5%	-
Total number of units	15	16	9	9	8	7
Total percentage (%)	100%	100%	100%	100%	100%	100%

### 1) 2013 개정 이전 및 이후 공통 소재

2013 개정 이전과 이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과서 본문에 언급되는 소재는 (1) 우상화 및 애국심 고취, (2) 일상 및 학교생활 총 2가지이다.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앞서 언급된 각 시기별 교과서 머리말 제시된 북한의 영어교육 목표와도 일치한다. 2013 개정 이전 및 이후 모두 북한의 영어교육은 주체사상을 고취시키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화 및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관련 소재를 사용하며 적절한 예시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1) 우상화 및 애국심 고취

북한의 영어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김정은 전집에 언급된 외국어 학습 목표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 혁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선 혁명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를 머리말 서두에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각 교과서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영어를 학습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본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김정은 이전 즉 2013 개정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최소 33%에서 66%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이 김일성과 김일성을 다루며, 우상화 및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4학년에 6학년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소개하며 이른바 태양절 및 광명성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생일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태양절에는 특별히 만경대를 방문하고, 평상시에는 교실 앞에 걸려있는 김일성 및 김정일 초상화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김씨 부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정 이전 “under the warm care of the respected General Kim Jong Il”과 개정 이후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과 같은 표현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각 정권의 최고 통치자 덕분에 북한사람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정 이전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5학년과 6학년 교과서에 각각 “... We have nothing to envy in the world. We are the happiest children thanks to the warm care of the respected General Kim Jong Il.”, “... We really have nothing to envy in the world thanks to the warm care of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Jong Il.”을 본문 내용에 담고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서의 삶이 감사한 것이며 북한 체제 하에서는 이 세상에 다른 부러울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이후 교과서의 경우, “It was June, Juche 101(2012). A lot of children came to Pyongyang by air, by train and by bus.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invited them to Pyongyang. ... My dream has come true. I'll remain true to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 all the children in our country have made the same decision. A bright future will be theirs forever”라고 언급하고 있다(고급중 1학년, 9과). 즉 개정 이전과 이후 교과서 모두 김씨 가문 우상화와 더불어 북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2) 일상 및 학교생활

개정 이전과 이후 모두 북한 영어교과서는 대부분 일상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표현들을 학습하게 하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우주와 환경, 동물 등 흥미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한 언어자료들로 교과서를 구성”(고급중학교 2학년, 머리말)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과 연계되는 표현들을 본문에 담으려 시도하고 있다(H.-Y. Yoo & J.-R. Kim, 2018).

개정 이전과 이후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영어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본문 읽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각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영어 수업 방식 및 영어 학습 목표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 개정 이전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5학년 2과 본문에서는 출석확인을 하고 숙제검사를 하며, 테이프의 내용을 듣고 뜻을 이해하였는지를 묻고, 교사가 다시 지문을 읽어 주며 학생들의 발음을 지적하여 고쳐주는 등 영어 수업 상황을 본문으로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문의 마지막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학습의

목표를 일깨워 주며, 외국어를 복한 혁명을 위해 학습하고 중학교 시기에 영어의 기초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정 이전에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확인하며, 다시금 교사가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해주며 직접 읽어 주는 등, 반복적인 읽기 학습과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등의 독해력을 강조한 교수법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이후 교과서에는 고급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에 “How I learned English”와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단원을 통해 영어로 말할 때에는 악센트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종종 CD를 듣고 화자의 발음을 따라 하여 발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에는 곧바로 사전에 통해 단어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추론하고 뒤이어 사전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친구들 또는 교사와 함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며,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들으며 스스로의 발음을 확인하라는 등의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정 이후에는 CD 및 녹음기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동료들 또는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영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2013 개정 이전 및 이후의 소재 변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 교과서 구성 체제와 외형뿐 아니라, 더불어 교과서 본문의 소재 측면에서도 이전과 확실히 대조되는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기존 교과서에서 주를 이루던 미국 제국주의 및 남한에 대한 맹목적 비판 및 왜곡, 교훈 및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 등은 모두 배제되었고, 이는 과학 기술을 소개 및 강조하는 본문들로 대체되었다(표 4 참조).

### (1) 2013 개정 이전 소재: 미국 제국주의 비판 및 문학 작품

북한에서의 영어교과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또는 국가에 충성하는 내용 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제국주의 미국의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등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소재를 다수 다루고 있다. 중학교 4학년 교과서의 경우 7과에서 “Poor American Boy”라는 주제로 돈이 없어서 제 때 치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제시하며 자칫 사람의 건강 또는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듯한 자본주의의 왜곡된 상황을 비추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교 5학년 교과서 6과에서는 미국에서 직업도 집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John Smith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There are many people like John in America.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get a



job.”이라고 덧붙이며, John과 같은 사람이 미국에 많이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실상이고 John은 이러한 미국을 싫어한다고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다음에 후속하는 7과에서 소개되는 평양에 사는 한 학생의 이야기이다. 매달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등, 북한 학생들이 최최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로 다 대답할 수 없다는 정권 찬양적 본문 내용을 통해 앞서 제시된 미국의 상황과 극명히 대비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금 교과서의 소재를 통해 미국을 왜곡 및 비판하며 반대로 북한에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불행한 한 소녀가 야만스러운 미국인들에 의해 부상당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Such barbarous atrocity can often be found in the southern part of our country. ... Only when we reunify the country, can we live happily under the warm care of the respected General Kim Jong Il.”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중학교 5학년, 16과). 즉, 한국에서 이러한 미군을 축출해야 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김정일의 따뜻한 보호 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선동하고 있다. 또한 흑인이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인종차별 문제와 이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사례들을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자식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한다.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이러한 참상이 자주 발견되며 “if we defend socialism, we are to win; but if we forsake it, we are to die. Socialism is our soul and life”라는 문장으로 해당 본문을 마무리 하고 있다(중학교 5학년, 14과). 즉, “사회주의를 저버리면 우리도 죽을 것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처참한 결과와 이로 인한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013 개정 이전 소재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위 표 4에 제시된 대로 개정 이전에 한하여, 문학 관련 소재가 대략 13%에서 32%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이전의 경우 문학 소재로 “The lamb and the wolf(중학교 5학년, 5과)”, “The wolf in sheep’s clothing(중학교 6학년, 4과)”과 같이 동물을 소재로 하는 우화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우화가 2013 개정 이후 교과서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후술할 것이나, 이는 기존의 단원 수가 9-16개에서 현재 총 7-9개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과학 기술 강조, 일상 생활 및 학교 생활과 같은 실용적인 소재에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2013 개정 이후 소재: 과학 기술 강조

북한의 외국어 교육 목표의 또 다른 특징은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B. Lee et al., 2005). J. S. Hong과 J-R. Kim(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에도 지속적으로 과학 기술을 강조하는 본문을 다루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인 김정일 집권기의 중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실제 단원의 읽기자료에서 과학 소재를 다룬 것이 아니라, 추가 읽기 자료에서만 포함된 소재들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분은 상기한 표 4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 개정 이후 교과서의 경우, 단원 수가 이전의 9-16개에서 현재 총 7-9개로 현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20%의 단원에서 과학 기술 관련 소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2013 개정 영어교과서에서는 이전에는 언급된 적 없었던 컴퓨터 관련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J. S. Hong & J.-R. Kim, 2019).

과학 관련한 소재에 대한 예시로는 물과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대체가능한 에너지를 제시하며 과학자들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찾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과 컴퓨터와 같은 소재를 통해, 이것들의 각각의 특징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컴퓨터 바이러스를 소개하는 단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단원에서 과학자들의 공로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My partner, Young Chol and I want to be famous scientists. ... Our future will be really great!”와 같이 교과서 본문에서 과학자를 언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여 미래 과학도로서의 장래 희망을 형성하도록 권장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된다.

이처럼 북한의 영어교과서를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 즉 2013 개정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였을 때, 이상화 및 애국심 고취와 같은 북한 특유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반면, 미 제국주의 왜곡 및 비판 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및 문학 관련 소재는 삭제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직접적 소재인 일상 생활 및 학교 생활 등 학생들의 일상 생활 관련 소재들로 대체되었다. 또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카세트, 헤드셋, 컴퓨터와 같은 교보재 보급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및 컴퓨터 활용과 바이러스 예방 등, 현 시대에 필요한 과학 상식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Coh-Metrix를 이용한 교과서별 읽기 지문의 난이도 및 가독성 분석

다음은 Coh-Metrix를 활용하여 2013 개정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별 읽기 지문의 난이도 및 가독성을 학년별로 제시한 자료이다(표 5, 6, 7 참조). 상기한 바와 같이, 2013 개정 이후 북

한 영어교과서의 외형, 구성 체제, 소재면에서 많은 변화 추이가 발견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각 교과서의 학년별 지문 난이도와 가독성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New Words in Each Unit by Textbook

Textbook	Grade	Unit	1	2	3	4	5	6	7	8	9
Middle school	4	23	24	26	34	30	17	30	28	28	
	5	27	22	30	30	28	X	29	28	28	
	6	22	20	22	25	31	43	25	51	32	
Advanced middle school	1	40	41	42	57	43	30	45	38	45	
	2	53	61	57	70	53	60	62	65		
	3	53	56	37	46	47	39	48			
Textbook	Grade	10	11	12	13	14	15	16	Total	Average	
Middle school	4	16	22	26	28	24	23		379	25	
	5	26	45	33	43	19	34	36	458	29	
	6								271	30	
Advanced middle school	1								381	42	
	2								481	60	
	3								326	47	

**TABLE 6<sup>8</sup>**

Coh-Metrix Results on Reading Passages in Pre- and Post-Revised Textbooks

	Middle school			Advanced middle school		
	Grade 4	Grade 5	Grade 6	Grade 1	Grade 2	Grade 3
Number of words	189 (-)	343 (▲81.5%)	358 (▲4.4%)	175 (-)	242 (▲38.3%)	273 (▲12.8%)
Sentence length	9.6	9.7	13.1	9.5	11.5	13.4
FRE	87.4 (-)	91.4 (▼4.5%)	77.4 (▲15.3%)	79.7 (-)	76.15 (▲4.5%)	76.1 (▲0.1%)
FKGL	3.4	2.9	5.7	4.5	5.51	5.98

1) 신출어휘와 단원별 지문 길이에 따른 교과서 난이도 분석

표 5와 같이, 중학교 4-6학년 교과서의 각 단원별 신출어휘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단원에서 제시하는 평균 어휘 수가 각 25, 29, 30으로 비교적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급중학교의 경우 1-3학년 교과서 평균 신출어휘 수는 2학년에 평균 60개로 기존 42개에서 18개 단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3학년에 47개 신출어휘가 제시되며 2학년 대비 13개의 어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년 간 신출어휘수가 평균 2-3개 증가한 중학교에 비해, 개정 이후 학년 간 차이가 +18개와 -13개로 학년 간 신출어휘의 증감이 개정 이전 교과서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에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중학교와 고급중학교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원별 사용된 단어 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각 단원이 신출어휘 수가 증가하였다. 2013 개정 이전의 중학교의 경우 각 단원에서 제시된 평균

단어 수가 4학년에 5학년은 약 81.5%(189개에서 343으로 154개 증가)로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5학년에 6학년은 4.4%(343개에서 358으로 15개 증가)로 비교적 소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급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 2학년으로 38.3%(175개에서 242개로 67개 증가), 2학년에 3학년으로 12.8%(242개에서 273개로 31개 증가)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학교 급 모두 1학년에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어휘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New Words Ratio by Grade Before and After Revision<sup>9</sup>

	Middle school / Advanced middle school					
	Grade 1		Grade 2		Grade 3	
	Pre	Post	Pre	Post	Pre	Post
Total words	189	175 (▼14)	343	242 (▼101)	358	273 (▼85)
New words	25	42 (▲17)	29	60 (▲31)	30	47 (▲17)
Percentage	13.2	24 (▲10.8%)	8.5	24.8 (▲16.3%)	8.4	17.2 (▲8.8)

그러나 표 7에서와 같이, 단원에 사용된 평균 본문 단어 수 대비 신출어휘수를 비교한 결과 개정 이전의 경우 학년 별로 각 13.2%, 8.5%, 8.4%의 비율로 본문에 사용된 단어 수 대비 평균 10%의 신출어휘를 제공하지만, 개정 이후의 경우 24%, 24.8%, 17.2%로 평균 22%에 해당하는 대비 비교적 많은 신출어휘수가 제공되고 있다. 개정 이후 교과서가 개정 이전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더 적은 단어 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고급중학교에서 더 높은 비율의 신출어휘가 제공된 것은 개정 이후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량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중학교 3학년의 경우 2학년 대비 단어수가 12.8% 상승하였지만(표 6 참고), 신출어휘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2학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신출어휘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후 상급학년인 고급중학교 3학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신출어휘와 이미 학습한 어휘를 활용하여 읽기 지문을 숙달시키려는 기본 전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 전후 교과서 모두 1학년에 2학년으로 진급할 때 각 본문에 사용된 평균 단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81.5%, 고급중학교의 경우 38.3% 증가하였다. 또한 각 지문의 단어 수 대비 평균 10%의 신출어휘가 제공되었던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고급중학교의 경우 평균 22%의 신출어휘가 제공되어 각 단원별 신출어휘가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본문에 사용된 총 단어량, 즉 지문의 길이

<sup>8</sup> 표 6은 Coh-Metrix 분석 결과로 각 단원별로 산출된 값들의 평균을 항목별로 나타낸 값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교과서의 전체 학습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

<sup>9</sup> 편의상 중학교의 학년제인 4-6학년도 고급중학교와 동일하게 1-3학년으로 표기하였다.

증가에 따라 학습자들의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개정 후 고급중학교의 경우 신출어휘 학습량이 2배 가량 증가함에 따른 학습자들의 부담감 가중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북한 영어 교과서는 2013 개정 전후에 지문 길이 및 신출어휘량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2) 학년별·학교별 가독성 수준 비교

각 학년별로 본문에 사용된 총 단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장 내 단어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문장 길이도 1-3학년 사이에 개정 이전은 9.6에서 13.1, 개정 이후는 9.5에서 13.4로 개정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 모두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Coh-Metrix 분석 결과 개정 이전의 교과서는 학년 간 지문 난이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정 이전 교과서인 중학교 5학년의 경우 이전 학년 대비 단어량이 81.48% 대폭 증가한 결과를 보였지만(표 6 참고), FRE 가독성 결과에 따르면, 증가한 단어수와는 상관없이 지문의 난이도가 87.4에서 91.4로 지문 난이도가 4.5% 하락하였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Flesch-Kincaid Grade Level(FKGL)의 경우 3.4등급에서 2.9등급으로 상급학년인 중학교 5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오히려 지문의 평균 난이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5.7등급으로 갑작스럽게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정 이전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급할 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후 6학년으로 진급하며 지문 난이도가 대폭 증가해 부담감이 다시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3 개정 이후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경우, FRE지수와 FKGL지수를 통해 각 학년별 지문의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표 6 참고). 이러한 결과는 개정 후 교과서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과서가 되었다는 결과(H.-Y. Yoo & J.-R. Kim, 2018)와도 일치한다.

## V. 요약 및 제언

‘은둔의 왕국’이라 불리던 북한은 2018년에만 3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이른바 ‘깜짝 회동’을 성사시켰다(H.-B. Cho, 2019; G.-W. Shin & R. J. Moon, 2019). 이렇듯 이전과 차별되는 북한의 개방적 행보는 정치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2013 이후 개정된 영어 교과서는 이러한 개혁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 개정 교육과정 영어교과서를 개정 이전 시기인 김정일 집권기

에 출판되어 사용되던 영어교과서와 비교·대조하여, 교과서별 외형, 구성 체제 및 단위별 소재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Coh-Metrix와 학년별 신출어휘를 활용하여 각 교과서의 외형적 변화 뿐 아니라, 각 시기별 교과서의 학년별 읽기자료의 난이도와 가독성 역시 분석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영어 교육에서의 두드러지는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학술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2013 개정 전·후 공통 영어교육 목표는 각 교과서의 머리말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명을 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013 개정 이후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는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 뿐 아니라 카세트와 녹음기,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기자재들이 사용되었고, 듣기자료를 추가하여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구성 체제 측면에서도 기존 교과서의 단순한 읽기와 해석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Plan of the book 파트를 통해 해당 단원의 각 영역(영어의 4기능 및 문법, 단어, 발음 영역)을 모두 구체화하여 세부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정 이전 교과서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더 체계화된 교과서의 구성을 볼 수 있다.

둘째, 소재 변화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영어교육은 기존의 정치적 사상 교육을 위한 도구보다는 보다 더 실제적인 의사소통 및 과학기술교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2013 개정 이전에는 주로 우상화 및 애국심 고취와 미 제국주의 및 남한에 대한 왜곡, 비판 소재가 사용되었다. 소재로는 (1)우상화 및 애국심 고취와 (2)일상 및 학교생활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교과서 소재들은 실제로 2013 개정 이후 교과서가 도입되기 직전까지 사용되었으며, 국가 검열을 거친 매체만을 접하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미국 및 남한에 대한 정보 또는 소재들은 학생들이 외국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미 제국주의 및 남한에 대한 왜곡 및 비판 소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일상 생활 및 학교생활과 우주, 환경, 동물 등에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실용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대체되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에서의 실리주의’가 영어교과서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4).

셋째, 본 연구는 각 시기별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의 읽기 지문의 난이도 및 가독성을 분석하기 위해 Coh-Metrix(기초산출치, 표준가독성)와 단위별 신출어휘를 활용하



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출어휘 수의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 시기의 교과서의 단원별 사용된 단어 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각 단원의 신출어휘 수도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2학년의 경우 기존 중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 2-3개로 증가하던 신출어휘의 수가 약 18개로 급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감이 가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급중학교의 읽기 지문의 단어 수, 문장의 길이, FRE 및 FKGL 지수가 학년 간 보다 더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폭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고급중학교의 학년 간 연계성이 기존의 교과서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된 고급중학교 전 학년의 영어교과서 외형, 소재, 지문의 난이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최근 영어교육 흐름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고급중학교로 국한되어, 제1중학교 및 초급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가 현재 여전히 대북 제재의 틀 안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의 영어 교실 수업 상황과 영어교과서를 활용한 학생들의 실제 학습 및 이들의 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북한 제1중학교 및 초급중학교 교과서 분석 및 탈북 학생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 실제 학교 영어 수업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는 학술적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hn, Soojin. (2018). An analysis of Coh-Metrix on the differences in English expository and argumentative writing of Korean and native English university students.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0(3), 177-205.
- Bae, Jiyoung. (2019). A study about the analysis of readability of English textbooks with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selection of children's English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 Education Society*, 18(2), 117-141.
- Cho, Han-Bum. (2019). From Hanoi to Panmunjeom: Assessment and prospects for DPRK-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12), 1-9. Retrieved from <http://repo.kinu.or.kr/handle/2015.oak/10382>
- Cho, Jeong-Ah. (2014).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 reform of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3(2), 177-206.
- Cho, Jeong-Ah, Lee, Kyo-Duk, Jung, Chae Kwan, & Kang, Hojye. (2015). *Education policy,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in the Kim Jong-un er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Flesch, R. (1948). A new readability yardsti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 221-233.
- Hong, Jeong Sil, & Kim, Jeong-Ryeol. (2019).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English textbooks along the North Korean ruling author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6), 599-619.
- Hwang, Seo-Yeon, & Kim, Jeong-Ryeol. (2017). Analysis of the English textbooks in North Korean first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1), 242-250.
- Jeon, Moon Gee. (2011).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continuity of the reading materials in middle school English 1 and 2 textbooks with Coh-Metrix.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56, 201-218.
- Jung, Chae Kwan. (2018). The development of a Common English National Curriculum for Koreans (CENCK).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2(4), 47-82.
- Kim, Eun-Ju, & Choi, Yeon-Hee. (1999). An analysis of English textbooks and English teaching methods in South and North Korea. *English Teaching*, 54(4), 177-198.
- Kim, Nam Sik. (1995). Bukanui gyoyukjedo: Bukan yeongeogyoyung siltae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Current status of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282, 178-187.
- Kim, Jeong-Ryeol, & Kim, Jiyoung. (2017). Corpus construction for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2(2), 207-232.
- Kim, Jiyoung, Lee, Je-Young, & Kim, Jeong-Ryeol. (2017). A diachronic lexica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331-341.
- Kincaid, J. P., Fishburne, R. P., Jr. Rogers, R. L., & Chisom, B. S. (1975). *Derivation of new readability formulas for Navy enlisted personnel*. Millington, TN: Naval Technical Training.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4). *Unification policy stud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Lee, Byungmin, Yang, Hyun-Kwon, & Kwon, Oh-Hyun. (2005). The current state of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4), 267-297.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Park, Eun Sung, & Shin, Yu Kyoung. (2016). Goals and contents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North Korea: Insights from high school textbooks. *Modern English Education*, 17(2), 91-109.
- Park, Yak-Woo, Park, Ki-Hwa, Kim, Jin-Cheol, Ko, Kyung-Seok, & Chung, Kuk-Jin. (2001). *Bukhan yeong'eo gyogwaseo bunseok* [An analysis of English textbook in North Korea]. Seoul: Hankook-

munhwasa.

- Shin, Gi-Wook, & Moon, Rennie J. (2019). North Korea in 2018: Kim's summit diplomacy. *Asian Survey*, 59(1), 35-43.
- Sung, Ilho. (2014). An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through readability formulae and Coh-Metrix.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0(4), 299-320.
- Yoo, Hee-Yeon, & Kim, Jeong-Ryeol. (2018). A comparison of structural organization of English textbooks between pre and post North Korean 2013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7), 412-421.